

미사 시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06:00						
09:30	06:00		10:00		10:00	
11:30						
19:00		19:00		19:00		16:00
유아 세례						
3·6·9·12월 첫 토요일 특전미사 후						
예비신자교리		주일: 09:30, 수·목: 20: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공덕동



수호성인 : 그리스도 왕
121-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105-233
http://www.kongdok.or.kr

주임신부 : 이 재 을(사도 요한)
☎ 718 - 1044
수녀원 : 임 병 희(소화데레사)
박 지 윤(마리 피 앓)
☎ 718 - 1043
사무실 : ☎ 718 - 1040 ~ 1
총회장 : ☎ 011-1706-8949
연령회장 : ☎ 017- 701-0185
사랑의집 : ☎ 718 - 1042
F A X : ☎ 714 - 6258

♣ 연중 시기 신앙생활

- 아침, 저녁 기도를 바칩시다.
- 매일 성경을 6-7쪽 읽읍시다.
- 가족기도모임, 대화합시다.
- 주님 이름으로 서로 칭찬합시다.

♣ 구역 미사 시작(2. 16)

1구역: 2. 16(수) 20:30(장두순 요한, 010-7313-8852)
2구역: 2. 18(금) 20:30(이말형 체칠리아, 010-2418-0678)

♣ 특 강

일 시 : 2. 16(수) 19:30(강사 : 김신자 말가리다)
주 제 :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장소: 강당)

♣ 상반기 공동체 봉사자 피정

일시 : 2. 26(토) 09:00 -17:30(장소 : 강당)
대상 : 사목위원, 지역장, 구역장, 단체장, 사랑방 봉사자
교사, Pr.단장
주제 : 봉사자의 기쁨
강사 : 1부 - 정월기 프란치스코(창 5동 성당 주임 신부)
2부 - 본당 주임 신부

♣ 2차 현금: 2. 13(주일)은 중남미 선교를 위한현금

♣ 예비 중학교 1학년 환영식

일 시 : 2. 19(토) 17:30(장소 : 강당)

♣ 가정 사랑방 봉헌식

일 시 : 2. 19(토) 16:00 미사 중
가롤로 사랑방 : 황인범 가롤로 가정
대천사 사랑방 : 임세호 라파엘 가정

♣ 예비신자 받아드리는 예식

일 시 : 2. 24(목) 19:00 미사 중
대 상 : 교리 중인 예비신자, 대부·모, 구역(반)장
사랑방 봉사자

♣ 예비신자 입교를 위한 고리기도, 성체조배

40일 고리기도 : 3. 5(토)까지
구역별 성체조배 : 3. 5(토)까지 매일 14:00
※ 예비신자 입교식 : 3. 6(주일)11:30 미사 중

♣ 요일 말씀 꽃송이

- 월~일까지 매일 암송합니다.
- 아침, 낮, 저녁, 밤에 암송합니다.
- 10번씩 40번 외웁니다.
- 하루에 한두 차례 말씀 중심으로 성찰합니다.
- 집, 직장, 학교, 생활 중에 암송합니다.

♣ 본당 1월 결산

수 입		지 출	
금액(원)	계 정	계 정	금액(원)
26,926,000	교 무 금	제전·전교비	341,500
16,942,800	주일현금	주일학교	462,750
8,590,000	감사현금	단체보조비	1,294,750
1,508,100	특별현금	특별현금	1,508,100
1,294,110	기타목적	사제생활·성무	1,200,000
3,000,000	기타수입	수녀생활·성무	1,810,000
300,000	사용수입	자선 찬조비	1,776,140
448,326	이자수입	교구납부금	10,800,000
		통신·보험금	351,850
		본당행사	1,406,950
		교육·신자피정	395,500
		소모·도서·사무	1,896,900
		수도광열·연료	5,447,400
		시설·용역·수선	24,892,550
		인건비·퇴직급여	12,470,487
59,009,336	계	계	66,054,877
잔	액		-7,045,541원

♣ 남성 지역 모임

2지역 : 2. 15(화) 20:00, 4·5지역: 2. 19(토) 20:00
3지역 : 2. 20(주일) 13:00, 1지역 : 2. 21(월) 20:00

♣ 단체 모임

시니어 아카데미 이사회 : 2. 13(주일) 13:00
체칠리아 성가단 : 2. 13(주일) 13:00
남성 울뜨레야 팀 회합 : 매주 주일 10:30

♣ 성가번호(연중 제6주일, 2. 13)

구분	시작	화답	봉 헌	성 체	마침
금주	414	29	218, 216, 217	156, 152, 499	34
다음	46	443	342, 212, 213	156, 506, 504	24

구 분	연중 제4주일(1. 30)						연중 제5주일(2. 6)						연중제3주일
신자수	특전	06:00	09:30	11:30	19:00	계	특전	06:00	09:30	11:30	19:00	계	1. 23
2,329	145	72	120	320	118	775(33%)	141	80	124	346	124	815(35%)	753

♣ 말씀의 꽃송이

“행복하여라, 공정을 지키는 이들,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시편106, 3).

코헬렛	
코헬렛은	인간의 행복이 자연적인 지혜나 지식, 세속적인 부, 명예, 권력, 권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하느님을 경배하는데 있다고 한다. 코헬렛의 사상은 인생의 의미와 죽음과 부조리에 관한 것이며, 생과 사를 오고가며 생의 달관을 설파한다.
이름 제정 과정	히브리 성경은 이 책이 코헬렛 말이라 하여 코헬렛이라 불렀다. 말의 뜻이 확실치 않으나 ‘회중 또는 회중 앞에서 가르치는 이’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도 회중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스테스(ecclesiastes)”라고 불렀다. 오늘날은 코헬렛을 전도자보다 “설교자”, “교사” 또는 코헬렛으로 옮기면서 책이름도 코헬렛으로 쓴다.
저자	이 성경은 포로기 이후 그리스 시대에 활동했던 유다의 한 늙은 현인이었을 것으로 보지만 어느 무명작가의 개인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혜전승에 근거를 둔 권위 있는 가르침임을 드러냈다.
저술 연대	기원 전 3세기경에, 아마도 기원 전 250년 전후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저술 동기	코헬렛은 헬레니즘 같은 외래사조가 밀려오는 새로운 시대에서 기존의 지혜문학이 지닌 허점을 보완하고, 이스라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애썼다. 코헬렛은 창조주 하느님만이 절대 가치를 지니시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니,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분의 선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아야 함을 일깨워 준다.

♣ 우리들의 정성(1. 24 - 2. 6)

교 무 금(160세대) 11,707,000
 주일헌금(1. 30, 775명) 2,611,950
 주일헌금(2. 6, 815명) 3,178,550
 사랑의 음식나눔(2/4) 34,000

♣ 미사안내 : 대 건 회(2. 13), 사 도 회(2. 20)

♣ 차 봉 사 : 사랑의음식나눔(2. 13), 제대회(2. 20)

♣ 여성 총구역 모임

구역장: 2. 15(화) 20:00, 구역(반)장: 2. 18(금) 11:00

♣ 매일 성경 읽기

시 편

날 짜	성경구절	내 용
2/13 (주일)	시편 104,1-106,48	크시고 크시어라 내 하느님 주님이시여, 당신은 그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시니, 우리는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나이다. 등.
2/14 (월)	시편 107,1-110,7	제 5권(107-150) 주님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을, 거문고 타며 노래하리이다. 그 죄악 언제나 주님 앞에 있게 하사, 메시아의 사제직 등.
2/15 (화)	시편 111,1-118,29	주님 하신 일들 하도 크시어, 복되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올 제(후편), 영광일랑 오직 당신 이름에, 주님을 사랑하노라, 못 나라 백성들아, 주님께 감사하라 등.
2/16 (수)	시편 119,1-176	주님의 법
2/17 (목)	시편 120,1-130,8	평화가 내 원, 산들을 우러러 눈을 뜬, 주님의 집에 가자, 우러러 뵈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주님께 의지하는 이,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님의 섭리, 시온에게 복을 주는 의로우신 주님, 깊은 구렁 속에서 등.
2/18 (금)	시편 131,1-137,9	어미 품에 안겨있는 어린이, 다윗의 서원과 주님의 약속, 형제들 오손 도손, 밤도와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바벨론 강기슭 거기에 앉아 등.
2/19 (토)	시편 138,1-143,12	어지심과 진실하심, 나를 살살이 보고 아시나이다. 악인에게서 나를 ... , 빨리 구하러 오시옵소서. 답답한 이내 심정, 당신 종을 심판으로 부르지 마옵소서.